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 공간의 경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송대호^{1*}

¹부경대학교 건축학과

Study of the Interpretation of Landscape in Daniel Libeskind Architectural Space

Dae-Ho Song^{1*}

¹Department of Architecture, PUK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을 대상으로 건축물 내·외부에서 지각되는 공간감과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외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리베스킨트 건축의 경관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느껴지는 공간’을 통해 과거의 흔적, 형태적 모순 등을 계획하였고, 다이내믹한 공간과 더불어 불안정한 긴장감을 유발시켰다. 특히, 그는 공간과 시간 사이의 벽을 허물어 그 간격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지각적 공간 차원의 경관을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리베스킨트 건축은 과거 역사적 사건을 현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지각적 공간으로서의 경관으로 이해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Daniel Libeskind's architecture by analyzing the perceived form characteristics visually and the sense of space recognized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in Daniel Libeskind architecture. The results showed that Libeskind is to deconstruct not only the 'temporal boundaries' but also the 'morphological contradiction' through sketch and public architecture by de-constructive language. These series of work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pace perceived time and space in the past by the 'Blurredness of temporal and spatial borderline'.

key words : Daniel Libeskind, Perceptual Landscape, De-constructivism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건축의 흐름 중 해체주의 건축은 물질적이고 유형적이며, 의도적인 구축이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유형화되지 않으며, 탈영역이나 비의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해체주의 건축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는 건축의 물적 측면에만 쏠려 있어 해체주의 건축을 하나의 새로운 유행 혹은 경향으로 파악하는데 머물러 있다[1].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역시 그의 건축이념, 표현 방법

등과 같은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해체주의 건축에 대한 연구가 2차원 형태 분석의 피상적 접근에 한정됨으로써 실제 3차원 공간속에 내재된 공감각적 차원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건축이 공간개념, 구축방식 및 기술, 표현 언어 등에 의해 계획되지만, 이와는 상관없는 건축적 고려사항을 현실적으로 세계와 사회, 그리고 당대의 과학적·철학적 개념에 연결시키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언어로 구축되기도 한다[2]. 한편, 과거 건축개념에서의 공간은 단순히 벽을 세워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공간은 ‘감지된 체적’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공간의 세분화에 따라 공

*Corresponding Author : Dae-Ho Song(PUKYONG Univ.)

Tel: +82-10-7209-3503 email: dhsong@pknu.ac.kr

Received July 24, 2014

Revised August 21, 2014

Accepted December 11, 2014

간 구성이 3차원적으로 연속되게 되었으며, ‘느껴지는 공간’의 개념이 등장하였다[3]. 오늘날 이러한 ‘느껴지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곧 사용자로 하여금 지각하게 되는 경관으로 인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을 대상으로 건축 외적인 물적 특성에서 벗어나 건축물 내·외부에서 지각되는 공간감과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외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건축에 내재된 경관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해체주의 건축은 기존의 건축 질서로부터의 이탈, 사고 과정의 진복 등 형태의 건축물과 그에 대한 질서를 해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건축물로 인식된다.

이러한 비정형 건축물은 현대 도시 내에서 랜드마크로 자리잡거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흉물로써 인식되기도 한다. 그만큼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하게 인식되며,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경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해체주의 건축가 중 한 명인 리베스킨트 또한 많은 해체주의 작품을 설계하였으며, 초기 작품에서 그의 내재적 감성이 많이 내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리베스킨트 건축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건축적 개념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스케치와 모델,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을 반영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박물관을 비롯한 공공 건축물을 통해 본인이 겪은 경험, 즉 홀로코스트(Holocaust)에서 비롯된 영향들을 이용가들로 하여금 자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입면을 계획하였다.

[Table 1] Range of a Research

Classification	Subject of Research
Sketch, Model Public Building	City Edge(1987), Felix Nussbaum Museum(1998), Berlin Jewish Museum(1999), Denver Art Museum(2006), Military History Museum(2011)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 건축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크 데리다의 철학과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은 해체주의는 기하학적 구성과 비정형적 형태로 시각적 인식이 강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먼저 해체주의 건축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분석하여 현대사회에서의 해체주

의 건축과 시각적 경관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각적 차원에서의 경관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즉, 리베스킨트의 건축은 공간을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경관으로서 물질(형상)과 비-물질(배경) 간의 경계선상에서 파악되는 이미지 그리고 해체주의와 주름 이론을 바탕으로 선적인 매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외관, 마지막으로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끌어들이므로써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사용자로 하여금 지각할 수 있도록 한 공간 등은 시지각적 체험을 통한 경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상과 배경간의 경계해체, 기하학적 형태의 경관, 역사적 배경의 전이를 통한 경관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이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경관 특질을 파악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 방향에서 리베스킨트의 작품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해체주의 건축과 경관

현대건축의 한 축인 해체주의 건축의 물적 형태는 그것을 이루는 표피(Skin)를 조절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형태 자체가 갖고 있는 오브제의 속성,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 담고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는 표피의 조절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표피는 단순한 피상적인 외관이 아닌 두께(Depth)를 가진 내부의 속성을 표현하는 매개체이다[4]. 그러므로 표피가 구축되어 이루는 공간 특성은 행위자의 지각적 접근에 따라 보여지고 느껴진다.

오늘날 현대건축을 주도하고 있는 해체주의 건축은 1966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논문 “인간학의 담론에 대한 구조와 기호, 놀이(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에서 해체주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5]. 이후 1988년 6월 뉴욕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에서 필립 존슨(Philip Johnson)과 마크 위글리(Mark Wigley)가 기획한 해체주의 건축(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전시회가 열리면서 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그 전시회에서 그들과 함께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베르나르 츠뭉미(Bernard Tschumi), 자하 하디드(Zaha Hadid), 프랭크 게리(Frank Gehry) 등과 같은 건축가들과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크리스토퍼 노리스(Christopher Norris) 등의

해체주의 이론가들이 참석해 해체주의에 관한 철학적 토론과 함께 건축 및 시각예술 등 예술 전반에 걸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Analysis of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6]

Language	Structuralism	Post-Structuralism
Structure of individuality and allness	Emphasis on individuality rather than the overall structure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ity's diversity, dignity
Issue of subject conception	Recognition of the nature of the subject by metaphysical dual structure	Rather than individual subjects to recognize multiple subjects
Issue of dichotomy	Dichotomy of thinking systems with language and writing	Denied, unstructured the existing dichotomy structure system
Structure system of the language	Recognition of the absolute structure system with language	Denied the structure system of hierarchial priority

그들은 규칙과 질서에 얽매어 있는 기존의 구조주의적 사고 형식을 깨고 창조적이고 탈구조주의적인 디자인 개념을 건축에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순간적인 장면에 대해 우연하게 포착되는 형태를 바탕으로 건축 형태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렇듯 해체주의는 파괴 또는 해체, 풀어헤침 등의 행위적 관점과 같은 부정적 경향이 강한 예술 사조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본질은 부정적 이미지를 뛰어 넘어 긍정적 이미지를 포착함으로써 개념을 강화하여 보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있다. 이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부정하며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난 탈구조주의 사상을 지향한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모더니즘의 획일적이고 단일적인 디자인이 다원화 되고 대안적인 표현 경향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Guggenheim Bilbao Museum - Frank Gehry
Dongdaemun Design Plaza(DDP)- Zaha Hadid

[Fig. 1] De-constructivism Architecture of Atypical Image

또한, 건축분야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해체주의를 거쳐 후기 구조주의 담론의 영향 하에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표현 능력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들이 실험되었다[7]. 이에 따라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사회의 모호하고 혼돈의 상황 속에서 강력한 그들의 표현의지를 건축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고 찰스 쟁크스(Charles A. Jencks)는 저서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의 서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건물은 크게는 대중 전체 즉 안락하고 전통적인 건물과 삶의 방식에 관련된 주제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모두를 향해 동시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건물이다.”[8]라고 하였다. 즉, 오늘날 해체주의 건축은 형태적 차원에서 눈에 확 띄는 어떤 것이 아닌 건물이 말하고자하는 어떤 이야기를 내포하는 하나의 경관으로써 자리 잡고 있다.

3. 공간 체험에 따른 경관적 특성

3.1 형상과 배경 간의 경계 해체

의미의 생성 문제에 대한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접근 방식은 ‘형태과괴(De-differentiation)’의 개념, 즉 형상과 배경(Figure-Ground)의 구조를 분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상시키는 ‘형태과괴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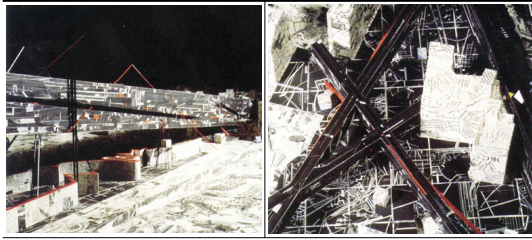
게슈탈트 심리학에 따르면 형상과 배경 관계에서 인지력을 깊이 있게 수정한 일시적인 정보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물을 본다는 행동은 하나의 시각적 판단이기도 하지만 사물은 또 다른 주변의 사물들과 관계하려는 어떤 내적 긴장을 유발한다고 한다[9]. 마찬가지로 사물의 3차원적 공간도 명암, 크기, 방향성을 가지므로 하나의 심리적 힘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형상(Figure)은 무한한 공간과 선형적이고, 연속적이고, 동질적이며 배경이 없는 고정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고정된 특성에서 벗어난 음향의 공간, 둥근 모양, 중단된 그리고 비동질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와 더불어 추상적이고 종결된 그리고 형태를 내포하는 한계 설정의 모습들의 상실을 지닌 형태 자체가 배경(Ground)이 되었다[2].

해체주의 건축에서 탈구조적이며 비선형적인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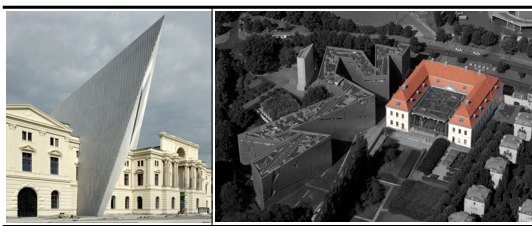
(Figure)과 추상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배경(Ground) 간의 경계는 흐리게 되었다. 리베스킨트의 도시 경계(City Edge, 1987)에서는 배경과의 지속성, 비지속성 안에서 불연속적인 시공간이 확장되고 있으며, 배경과 형상간의 상호연결 또는 혼란스러움이 표현되고 있다.



[Fig. 2] City Edge project, Berlin(1987)

그리고 모형 바닥에 건축도면, 성서, 전화번호부, 지폐 등 종이를 찢어 꼴라쥬 시켰다. 이들은 흔적들의 집합체이며 기억의 아이콘으로 유추된다[10]. 이렇듯 배경과 형상 간의 모호함은 더욱더 개방되고 유동적이며, 비가시적인 형상과 불안한 외형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이질적인 요소를 장애 또는 변이의 형태로써 다루지 않고 한데 묶어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 간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특히,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그는 과거 유대인들의 학살(홀로코스트, Holocaust)을 건축적 배치와 이질적 공간들을 통해 흔적을 담은 부재의 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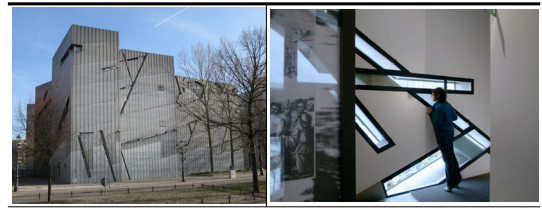


Military History
Museum(2011)

Berlin Jewish Museum(1999)

[Fig. 3] Ambiguity through the combination between disparate elements

무엇보다도 그는 기억의 조직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물리적 흔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적 조직들도 중요한 흔적으로 간주하여 그의 건축에 담아내고자 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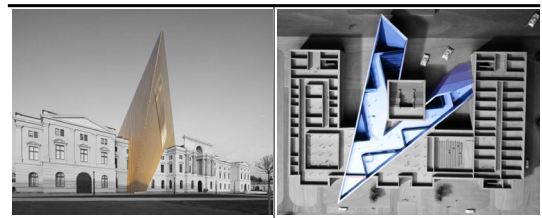


[Fig. 4] Internal and External Windows in Berlin Jewish Museum

리베스킨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Berlin Jewish Museum, 1999)의 독특한 창들을 베를린 내에 산재되어 있는 특별한 장소들을 연결 시켜주는 선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11].

이러한 창들은 기존의 입면적 형태의 창들과는 달리 건축입면의 디자인에 결부되면서 독특한 입면을 형성하는데 이를 통해 들어온 빛은 내부공간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의도치 않은 공간적 체험을 만들어 낸다. 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의도적으로 형성시킨 창을 통해 리베스킨트는 내외부 공간에 대한 경계를 해체시켰다.

또한, 독일의 드레스덴에 위치한 군사역사박물관(Military History Museum, 2011)에서 기존의 군사창고와 역사적 부재공간으로써 켜기(Edge)를 증축하였고, 이를 통해 그는 역사적 요소로서의 부재인 배경(Ground)과 기존의 군사창고인 형상(Figure)을 결합하였다. 물질적 차원에서 현대의 재료인 유리나 철은 기존의 군사창고의 외벽 재료인 시멘트와는 대별되는 형태를 가지고 리베스킨트는 반투명한 물질로 단단한 콘크리트의 벽을 부수가 들어가 역사적 구조를 잘라냄으로써 전쟁에서 야기된 상처를 표면화하였다.



[Fig. 5] Military History Museum, Dresden

리베스킨트의 건축에서 형상과 배경의 차원의 결합은 현대 유대인 박물관, 펠릭스 누스바움 박물관 확장 계획에서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리베스킨트는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다른 언어들을 겹침으로써 과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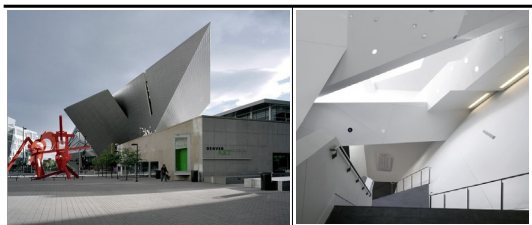
혼적과 새로운 언어를 결합시켰다. 이를 통해 그는 이질적인 것들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였으며, 배경과 형상 사이의 실질적인 물질적 한계를 와해시켰다.

또한 그는 도시와 건축, 역사와 건축을 결합하여 대지 형태와 건물 간의 관계에서 구축된 외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바탕으로부터 조정차원의 합성된 물질로서 계획하였다.

3.2 선의 불규칙성과 기하학적 형태의 경관

해체주의 건축은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질 들뢰즈의 주름 개념 등의 비정형을 추구하는 이론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해체주의는 개개의 부분을 자유롭게 하여 현재 도시의 특성에 더욱 잘 부합하는 “다양한 것들”의 역동적인 조합으로 전체를 변형시키고, 부재의 표현을 반 계층적, 반 구조적, 반형식적인 철학 체계를 표현한다[2]. 대지를 벗어나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위치하는 다양한 형태 간의 관계 속에서 리베스킨트는 복잡하고도 다이나믹한 공간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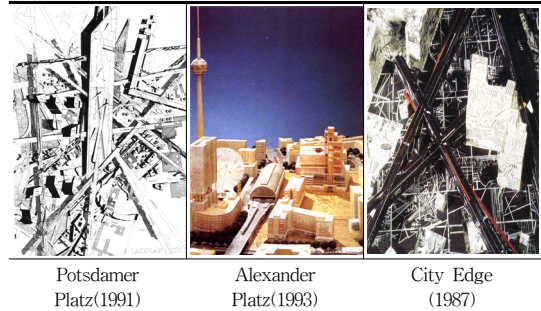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현대 과학과 기술은 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 변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2]. 그리고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복잡함과 3차원적 형태를 다루고 창조하기 위해 캐드(CAD), 라이노(Rhino) 등과 같은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자유로운 평면을 구성하고, 공간은 지면에서 지속되는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Fig. 6] Unstable Visual sense in Denver Art Museum

리베스킨트는 덴버 아트 박물관에서 디지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그의 기본 건축 개념인 선(Line)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선들을 구축하였다. 그는 이러한 선을 통해 예각으로 중첩되는 축을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해체하였다. 덴버 아트 미술관에서 그는 선의 불규칙성과 기하학적 구성을 통해 불완전한 2차원적 평면에서부터 3차원적 볼륨의 다이나믹한 공간을 형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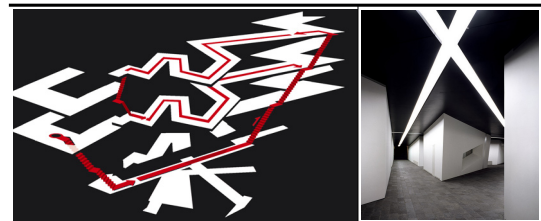
였다. 또한 건물 입면의 역삼각형의 조형적 형상과 티타늄은 미래지향적 박물관을 표방하는 마감 재료로써 사용하였다.



[Fig. 7] Geometric Structure of Chaos and Overlap

포츠담 플라자(Potsdamer Platz, 1991)와 알렉산더 플라자(Alexander Platz, 1993), 도시 경계(City Edge, 1987)은 건축의 전통적인 기호를 모두 무색하게 하고 혼동적인 중첩 속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이루며 불연속적 시각을 형성하였다.

특히, 도시 경계에서는 가늘고 긴 선형의 매스가 겹쳐지며 사선으로 기울어져 방향성에 의한 긴장감과 시각적인 무게와 방향의 균형 파괴로 역동성을 발생시키고 있다[10]. 한편,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는 지그재그 형태의 평면 구성과 함께 실내를 사선으로 관통하는 공간, 불규칙한 평면 구성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이탈한 불균형한 공간에서의 역동감을 지각하게 하였다. 특히, 지그재그의 접기에서 발생한 공간들은 이용자로 하여금 극적인 효과를 지각하게 만든다.



[Fig. 8] Zigzag's Dynamic space in Berlin Jewish Museum

들뢰즈는 접기의 내부에서 접기는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자체를 만들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기계적 이론이나 철학적 이론을 넘어서 시도하는 새로운 경관을

출현케 한다[2]. ‘선들 사이’의 접힌 공간들은 폐쇄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야기하며, 내적 불안감을 조성한다. ‘접기’를 통한 기하학적 공간구성을 통해 리베스킨트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그것을 지각하도록 애썼다. 또한, 그는 그의 초기 스케치들에서 사선으로 비틀어져 올라가는 램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건물 내부로 비틀며 불안정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13]. 리베스킨트는 무엇보다도 불연속적 시각을 형성하여 시간과 공간적 배경,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언어가 복합적으로 구성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기하학적 형태를 통한 불안정성을 건축적으로 풀어냄으로써 과거의 흔적들을 담아내고자 했다.

3.3 역사적 배경으로의 경관적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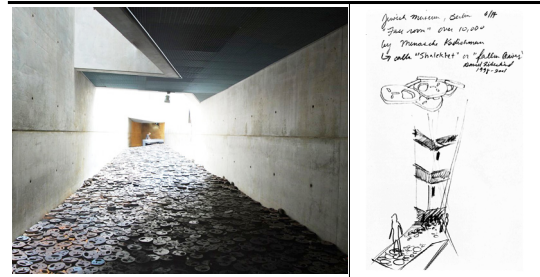
리베스킨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개념을 “선들 사이(Between the Line)”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빈 공간’은 지그재그 프랙탈의 극적인 좁은 길을 횡단하며 진행되는 파편으로 현재의 베를린 문화의 중심을 부유하고 있다[2]. 이러한 지그재그 선들은 유대인의 정신적 연결을 의미하며, 베를린 도처의 유대인들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사물들 사이의 거리는 붕괴되고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장소에 대해 느끼는 지각은 왜곡된다[8]. 사건과 공간 사이의 중간은 층들 사이의 상호관계, 중간의 공간 빈틈, 간격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역사적 경관이 침투하게 된다. 지그재그의 선을 통해 그는 독일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의 연결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사건과 공간 사이의 건축은 하나의 바탕개념의 가능한 실현화이고 새로운 배경 경관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2]. 이에 따라 역사적 배경은 사건의 공간화 장소, 제한의 해명과 변전의 장소, 파괴의 장소 등을 의미하게 된다.

리베스킨트는 대지 위의 무형의 망 또는 관계를 연결하는 축들이 있다는 것과 베를린에 거주했던 유대 민족의 역사가 단지 물리적 흔적 뿐만아니라 정신적 연결성을 지닌다는 것을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나타내려고 했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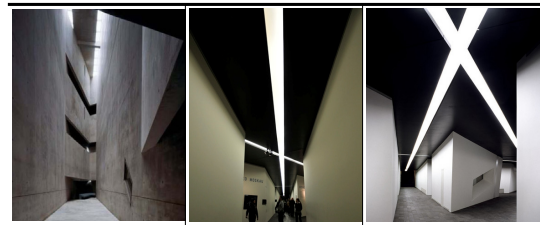
리베스킨트는 유대인 박물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선들을 수용하였으며, 정신적·인지적 장소로서 중간의 공간을 잘 해부하여 과거 유대인들이 겪었던 홀로코스트의 역사성을 비움(Void)의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박물관

관 내부에 홀로 코스트로 인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작품의 공간을 설피 하였으며, 이 공간을 통해 박물관의 성격과 역사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Fig. 9] Spaces of Absence and Conceptual Sketch

이와 더불어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사용자들은 일련의 접힘과 펼쳐짐의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질적인 공간들의 배치로 파편화된 공간의 기억들을 연결하고 재배치하여 새로운 연속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14]. ‘빈 공간’ 즉, 부재의 공간은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무거운 진공, 차가움, 어두움, 불안함 등을 느끼게 하며, 이와 함께 가늘고 날카로운 빛은 유대인들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Fig. 10] Spaces of Absence in Berlin Jewish Museum

따라서 ‘빈 공간’은 부재의 경관으로 풍부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기억들로 이용자들에게 지각된다. 이 후에도 그의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나타난 사건과 건축의 ‘사이’를 여러 공간을 통해 드러내고자 계획하였다.

오스나브뤼크(Osnabrück)의 펠릭스 누스바움 박물관(Felix Nussbaum Museum)에서도 이러한 재현적 공간이 계획되었다. 펠릭스 누스바움 박물관은 ‘출구 없는 박물관’으로 진입로 외부의 텅 빈 공간 자체가 부재를 의미한다. 그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오스나브뤼크 출신의 유대인 화가인 누스바움의 절망과 현실, 열정을 내포

하기 위하여 ‘출구’를 없애고, 통로의 갑작스런 단절, 예상할 수 없는 교차와 막다른 부분 등을 계획을 하였다. 또한 세 개의 삼각형 볼륨이 각각의 외적 특성을 가지며 불규칙한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고, 이들 사이로 내부공간에서 일어나는 축들의 교차가 외부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는 매스가 중첩되는 가운데 하나의 매스의 하부 공간을 개방시킴으로써, ‘존재의 상실(Absence)’ 공간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이 공간을 일종의 빈 캔버스로 인식하게 하며, 그 자체가 누스바움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방성과 불완전함을 지각하도록 하였다[15].

리베스킨트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역사성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는 내부 벽에 희생자의 이름을 써놓거나 빈 허공의 공간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시공간을 넘어서 과거의 흔적들을 지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에 나타난 경관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Perceptual Dimensoin

Concept	Elements	Landscape Characteristics
Borderline Dismantlement	Figure& Ground	·Blurredness of the Borderline between Figure and Ground ·Inducement of the visual ambiguity
Geometric Form	Line/Fold	·Formation of unstable visual sense from oblique space broken the land ·Destruction of dynamic/balance sence
Transference from historical background	Absence/Void	·Perception of historicity through transferring history to 'Void' ·Difference disintegration of perceptual viewpoint through space of trace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그의 스케치 및 건축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비정형적 이미지를 투영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여러 공공 건축물을 통해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극대화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체험하여 지각하도록 계획한 점을 볼 수 있었다. 즉, 지각적 차원에서 리베스킨트 건축에서는 내적 불안감, 부재의 공간 등이 계획되어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으며, 불안감을 유도하였다.

또한 그는 역사적 사실을 건축물에 반영함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고, 사건과 공간 사이의 간격을 붕괴시키면서 왜곡된 지각적 공간을 계획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초기 스케치 및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가 건축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공간을 지각적 차원에서 즉, ‘느껴지고 감지된 공간’으로서의 공감각적 특성을 경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은 지각적 측면에서 세 가지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 모호함을 구성하고, 내부에 역사를 투영시켜 그 사이에 경계를 해체시킨 경관, 두 번째는 기하학적 매스구성에서 지각할 수 있는 내·외적 형태의 경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내부에 역사적 사건을 투영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경관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경관적 특징은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질 들뢰즈의 주름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건축적 언어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스케치 및 공공 건축물을 통해 ‘형태적 모순’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계’를 해체하고자한 점,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시공간적 간극을 흐림’으로써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현재에 지각할 수 있도록 ‘공간적 전이’를 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리베스킨트는 선적 리듬을 강조하였으며, 선의 접힘에서 나타난 예각과 지그재그의 형태는 다이내믹한 공간을 유도하고 불안감을 조성시켜 사용자에게 지각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느껴지는 공간’을 통해 과거의 흔적, 형태적 모순 등을 계획하였고, 다이내믹한 공간과 더불어 불안정한 긴장감을 유발시켰다. 특히, 그는 공간과 시간 사이의 벽을 허물어 그 간격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지각적 공간 차원의 경관을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리베스킨트 건축은 과거 역사적 사건을 현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지각적 공간으로서의 경관으로 해석된다.

References

- [1] Lee, Jong-Gun, Deconstruction of Deconstructive Architecture, Bal-Un, p.12, pp.169-170, 1999.
- [2] Paola Gregory, New Scape: Territories of Complexity,

Time+Space, 2004.

- [3] Bernard Tschumi, Ryu, Ho-Chang, Seo, Jeong-yeon, Architecture and Destruction, Time+Space, p.35, 2002.
- [4] Park, Ji-Ho, A Study on 'Terra-Tectonic' in Architecture, Seoul University Master's Thesis, p.18, 2001.
- [5] Kim, Sung-Kwang and 2 others, A Stud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econstructive Architectur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6 no.6, p.110, 1990.
- [6] Yun, Jae-Eun, A Study on the Meaning System of Space Philosophy in Deconstructivism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Doctor's Thesis, pp.60-63, 2007.
- [7] Lim, ki-Taek, A Study on the Border-Dismantling Tendency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Hong-ik University, Doctor's Thesis, p.28 2006.
- [8] K. Micjael Hays, Bong, Il-Bum,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spacetime, pp.241-441, 2010.
- [9] Lee, Sun-Man, A Study on the Ground & Figure in Gestalt Psychology,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7 no.2, pp.246-247, 2006.
- [10] Lee, Do-Hee, A Study on Daniel Libeskind's Architectural Contemplation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13 no.1, p.33-36, 2004.
- [11] Jung, In-Ha,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Non-representation, Acanet, p.46, 2006.
- [12] Song, Dae-Ho,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Thinking and Form Characteristics in Free-form Architectur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2 no.4, p.92, 2010.
- [13] Daniel Libeskind, The space of Encounter, UNIVERSE, pp.25-26, 2000.
- [14] Lee, Sun-Hye and 1 others,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and Architectural Ideology of Daniel Libeskind,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3 no.4, pp.52-56, 2011.
- [15] Chung, Tae-Yong, A Study on the Embodiment of Architectural Concept in Felix Nussbaum Museum,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0 no.3, p.53, 2011.

송 대 호(Dae-Ho Song)

[정회원]



- 1994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1999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2000년 3월 ~ 2010년 2월 :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설계, 도시건축, 경관계획